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천 편집국장: 조순권

교회학교, 활발한 전도활동

오늘 초등1~6부 연합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

6월 23일 고등부 '친구 초청 총동원주일'

6월 29-30일 청년1부 '96 함께 하는 청년'

교회학교 각 부서는 6월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전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이때쯤에는 온 교회가 예수사랑 큰잔치라는 전도운동으로 들끓었고, 교회학교도 이에 발맞추어야 했었다. 그러나 전도운동이 단시간대에 실효 위주, 경쟁 위주가 됨에 따라 부작용이 많이 제기되어 있었다.

금년에는 교회적으로 하는 전도활동은 안하기로 함에 따라 각 교구나 교회학교에서는 연초부터 자발적으로 자체 계획을 세워 1년 동안 꾸준히 실시할 수 있는 전도운동으로 진행하여 가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와 준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전도운동으로 점차 자리잡아가고 있다.

교회학교의 전도운동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주변의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충현교회 교회학교에 적을 둔 학생 중 장기 결석자나 또는 부모가 충현교회에 나오지



만 학생들이 만나오는 경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다. 교회학교의 많은 부서가 우선 적을 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위에 안 믿는 친구들을 초청해 오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는

우리 교회의 위치와 교회 주변 주택가가 별로 없음을 볼 때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교회학교 출석률이 60-70%에 이르는 것을 보아도 오늘 초등1~6부 연합으로 실시하는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의 초점도 부모는 충현교회에 나오는데 자녀가 거리상의 문제로 충현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에게 맞추었다. 그래서 초등부에서는 정상적인 예배시간인 오전 8시 50분과 학부모들에 맞추어 주일 3부예배 시간인 오전 11시에 초등부 어린이 초청잔치를 열기로 했다.

이런 운동은 매우 중요하다. 온 가족이 다함께 한 교회에 출석하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충현교회 교인들은 거리가 멀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또한 교회학교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고등부로 6월 23일(주일) '친구 초청 총동원주일'로 정하고 학교 친구들과 장기 결석자들을 전원 출석토록 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 중 장기 결석자를, 학생들은 학교에서 장기 결석자를, 또한 신입과에서는 등록교인 중 고등부 학생들을 찾아 나서고 있다.

청년1부는 6월 29일(토), 30일(주일) 교회내 20대 청년이 모두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1부의 특성상 타부서 봉사(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가 많아 전체가 모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번에는 전체가 모여 여름 단기 선교와 여름 나도·오지 전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회내 20대 청년 중 청년1부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과 평소에 전도 대상으로 삼고 기도해온 사람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펼치게 된다. 6월 29일(토)에는 바자회와 그림, 공예, 시화전 등 자연스런 교제의 장을 마련하고 저녁시간에는 찬양의 새간 등을 갖고 30일(주일)에는 전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각 부서의 자발적인 전도운동이 바르게 자라잡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건축중인

제2교육관 증축기로

용도 변경으로 당회에서 확정

지난 94년 3월 9일 착공하여 금년 4월에 준공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 제2교육관 건축의 공사 일정이 일부 수정하게 되었다.

이는 현재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제2교육관 부지를 포함하여 강남지역의 일부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경에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것(3월 8일자 일간지 보도)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난 4월 당회는 강남구 청의 결정에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교육관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지하 4층, 지상 2층의 원래 계획을 수정하여 지하 4층, 지상 5층으로 3개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되어 계획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예배실과 분반 공부실로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6-6기 수강생 모집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장 장로)에서는 96-6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예선부에서는 그동안 현재 약혼 중에 있거나 장차 결혼을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결혼 적령기의 남녀 성도를 대상으로 성경적 결혼관, 집소한 결혼준비, 부부의 성격테스트, 가정법률상식, 가정의학 상식, 부부 대화,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맺기, 전장한 부부 생활 등에 대해 특강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96-6기는 오는(6월 2일)부터 7월 28일(주일)까지 매주 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2개월 과정으로 교육관 208호와 209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직원모집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함께 일한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 자 격
세례교인으로써 여사무직은 여상 졸업자로 23세 미만, 경제적인 50세 전후로 신앙에 돈독한 사람
- 대 상
여사무직 6명, 정직직 0명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 포함)
주민등록증본
당회장추천서(채용 후 제출도 됨)
- 서류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 402)

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4일) 새벽기도회 ①

구름기둥 불기둥 (출 13:19-22)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숙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취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출 13:19-22)

지난 고난주간 동안 교회는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열어 기간 중 매일 새벽, 낮, 저녁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졌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순종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오신 강사 목사님의 자기 체험과 간증이 담긴 메시지는 온 교인들에게 큰 감명과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제 부흥사경회를 마치면서 그때의 감동을 다시 한번 새겨보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고, 또한 그때 참석하지 못한 다른 교우들과도 이 은혜를 함께 하고 싶어 <주간중헌>에서는 부흥사경회 메시지를 가감없이 그대로 풀어 전하기로 하였다. 연재 순서는 부흥사경회 일정을 따라서 하게 된다. (편집자)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5장 21절, 22절을 더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께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께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오늘 아침의 말씀인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길이 두 개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국제 도로로 지중해 해안 쪽으로 따라가면 불과 보름만에 들어 갈 수 있는 길과 사막을 가로질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보름만에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없는 사막으로 나왔습니다. 길이란 사람이 자주 왔다갔다 하면 그 발자국이 다져져 가지고 길이 생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러나 사막에서는 길이 생기지를 않아요. 사람이 발자국을 남겨도 바람이 불면 바람에 모래알이 나부껴서 그 발자국이 덮여져 버리기 때문에 막막하고 갈바를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길이 그렇다 이겁니다. 인생의 가는 목적, 우리 성도가 가는

목적이 천국인데 그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사야 63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씀했어요. 받아 하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40년 동안 같이 역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었어요. 그러면 영영 없어졌느냐? 아니요. 40년 동안 시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성령은 여전히 여전히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 15, 1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을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파텔’이라 합니다. “아바 아버지여” 그런데 ‘아바 아버지’라는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말이지만 그러나 감탄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인도를 받으면 감격해서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를 신통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아바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짖고 인도를 받습니다. 인생의 하룻길조차도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막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행로인데 인생의 가는 길이 없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김덕신 목사
(대구 동부교회 담임)

— 연재 순서 —

- 첫째날 (4월1일)
 - 저녁 집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요13:36 ~ 14:6)
- 둘째날 (4월2일)
 - 새벽기도회 신령한 생수(출 17:1 - 7)
 - 낮 공부 은혜와 은사(고전 12:4 - 11)
 - 저녁 집회 다윗의 신앙간증(시 23:1 - 6)
- 셋째날 (4월3일)
 - 새벽기도회 다윗의 신앙고백(시 51:1 - 15)
 - 낮 공부 믿음의 성전과 봉사의 성전(창 28:10 - 22)
 - 저녁 집회 정조를 구하라(사 7:10 - 17)
- 넷째날 (4월4일)
 - 새벽기도회 구름기둥 불기둥(출 13:19 - 22)
 - 낮 공부 축복과 복(창 48:1 - 7)
 - 저녁 집회 말세의 하늘의 세 가지 음성(계 17:15 ~ 18:5)
- 다섯째날 (4월5일)
 - 새벽기도회 내 사랑아(아 6:4 - 9)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해요. 여러분, 자기 가는 길을 몰라요. 걸음을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 같은 분이 인생의 길을 지도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조문석사(朝聞夕死)”라 “아침에 가는 길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고한 그런 훌륭한 분이 “나는 가는 길을 모른다” 하는 아주 정직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잠깐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받아 하세요. “너는 법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습니까? 길을 지도하십시오. 지도하실 분이 이제 나왔어요. 그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의 인생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인생의 교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인도하십니다.

다같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을 가르쳐 주면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인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길을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들이 평탄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

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만 그렇습니까? 결혼의 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사업의 길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삶의 길을 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길이 막막하고 답답하거든 기도하면 반드시 길을 지시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믿으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 가는데 앞길에 누가 제일 먼저 섰나 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을 섰어요. 사막은 그렇습니다. 바다 물결 모양으로 또 높낮은 것이 있어 가지고 들어가면 빠져 버린답니다. 모래 밑으로 빠져 들어가 버립니다. 아주 위험하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다 피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으세요. 다같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래 인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막에서 길을 알 수 없는데 그래 기쁜 인도를 받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을 가면서 인도하다가 애굽 군대가 다시금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잡아가고 거역하는 자들은 죽이려고 수백의 병거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큰 일 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일을 어찌면 좋습니까?” 하니까 앞으로 가던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가 버렸어요. 구름기둥이 뒤로 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햇빛같이 환한 밝은 빛을 주시고 애굽 군대에는 어두움을 주시어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홍해를 가리키라.”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육지같이 되었습니다. “빨리 건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는데 애굽 군대는 육지인지 언덕인지 바다 복판인지도 모르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 군대가 바다 복판으로 다 들어 왔다 싶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뜬히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 서는 순간에 모세를 보고 돌아서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갈

토막소식

▶ 초등3부는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생활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시편)쓰기를 하고 있다.

▶ 장년3부에서는 6월 23일(주일) 성경암송대회를 실시기로 하였다. 범위는 디모데후서 3장 1-17절.

▶ 새가정부에서는 오는 6월 5일(수)과 6일(목) 이틀간 수련회를 실시한다.

▶ 제8교구는 오는 6월 6일 태능 푸른동산에서 야외예배를 드린다.

▶ 영어예배부는 6월 6일(목) 과천 구세군사관학교에서 야외예배를 드린다.

▶ 차량관리부 수련회가 지난 5월 24일 강화도 문수산에서 열렸다. 매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밀어닥치는 차량을 인도하고 주차케 하며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하여 애쓰는 차량관리부 회원들은 이날 하루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하고 서로간에 교제하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수련회에는 이홍성 목사, 김영길 장로 외 76명의 차량관리부 회원이 참여했다.



▶ 충현복지관 직업훈련생 39명과 지도교사 6명, 자원활동가 2명 등 모두 47명은 지난 5월 16일 서울 경마장 경마공원에서 열린 제10회 서울시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에 참가하였다.

이 행사 참가는 정신지체인들에게 정서 순화 및 예술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슬기와 창의성을 기르고 정신지체인의 자기 발전의 좋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졌다. 처음 참가하는 정신지체인 사생대회였지만 39명의 훈련

생들 모두가 열심히 참여하여 좋은 그림들을 그렸다. 푸르른 자연 속에서 훈련생들이 나름대로의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창작 그림을 그리며 숨겨진 또 다른 재능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있지만 대부분이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일회적인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행사들이 진행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을 비롯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여겨진다.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장애인 사생대회에 참가한 많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사랑부 학생들 출전, 수상

지난 5월 15일 성남 국군 상무부대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사랑부 학생들과 충현복지관 직업훈련생, 지도교사, 자원활동가들이 참가, 관람하였다. 이 체육대회에서 사랑부의 김윤정 학생이 육상 100m, 200m에서 금메달을, 하영희 학생이 육상 400m, 800m에서 은메달을, 임미란 학생이 탁구에서 동메달을, 김성희 학생이 수영 자유형 50m에서 은메달을, 100m에서 금메달을, 정보영 학생이 수영 평형 50m에서 금메달을, 자유형 100m에서 은메달을 땀다.

사랑부 학생과 복지관 훈련생들은 이 대회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며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통해 건강한 신체 단련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었으며, 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해 멋진 경기를 펼치는 장애인들의 모습 속에서, 장애는 극복될 수 있는 불편함일 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비롯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목 요일. 오전부터 바쁘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화장하는 시간은 5분. 오늘따라 얼굴이 더욱 초췌하고 까칠한 것 같다. 봄이어서 그런가. 부라부라 로션을 찍어바르다가 문득 나의 얼굴을 유심히 봤다. 거울 속에 두 개의 나의 모습이 있었다. -죄악투성이인 본래의 나와 이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된 나의 모습. '그래, 우리의 본래 모습만으로는 아무 앞에도 나설 수 없지, 적어도 기본적인 화장 정도는 해야지, 보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거야.' 생각하며 루즈를 바른다.

우리가 매일 화장을 하지 않고는 타인 앞에 설 수 없듯이, 날마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또한 타인 앞에 설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단가. 예수님 덕분에 그나마 우리의 추한 모습은 감춰지고 타인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혼자 은혜받고 준비 끝.

친정 부모님과 12시까지 석계OO병원에서 만나, 다리가 부러져 입원 중이신 노할머니(불신자) 병문안 하기로 하고 전철을 탔다.

오랫만에 차타고 멀리 떠나보는 불나들이다. 왕십리에서 전철을 기다리다

가 온 세상이 꽃천지임을 발견, 너무나 아름다웠다. 나의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고, 괜히 기분이 좋아지며 마음이 들뜬다. '아, 봄이구나! 그래 얼마 전이 부활절이었지.' 입에서 저절로 찬송가가 흥얼거려진다.

■ 독자의 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신앙

백 명자

(제1-1교구)

흐드러지게 핀 백목련 하이얀 꽃송이들, 노오란 개나리들, 연분홍 진달래...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허리척추디스크로 치료 중인, 며칠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수현(중3, 휴학)이의 해맑은 얼굴이 생각나며, 지금 병문안 하러 가는 노할머니의 모습이 함께 겹쳐진다.

우리 인간과 이 우주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저 나무들이 꽃을 피울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꽃나무 한 그루만 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건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 안타깝다. "하나님, 수현이와 노할머니께서도 하루 빨리 건강을 찾아 예수님 잘 믿고 저 나무들처럼 아름다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많이 맺는 영육이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소서." 잠깐 묵상기도.

저 나무들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며, 여

름에는 시원한 그늘로, 또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니, 그럼으로써 저 한 그루 나무는 나무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저 나무들도 상처를 입고, 가지가 부러지고, 벌레가 생겨 온전하지 못하면 나무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온전한 신앙이 되려면, 진실로 예수님-생명의 근원-, 원가지 끝에 꼭 붙어서 잘 자라야 할 것이다.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젖을 짹짹 빨아 먹으며, 약동하는 봄기운을 마음껏 뿜어내는 저 꽃나무들처럼, 우리는 온전하고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상처 입지 않고,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잘 이겨내었을 때, 비로소 때가 되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울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야외예배를 다녀와서 ✽



모이자 서로 사랑하자

김 신 국

(집사, 제1-2교구, 초등3부 교사)

하 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밝은 빛이 푸르른 잔디밭을 따사롭게 비추었던 5월 18일. 그러한 햇살 아래 이처럼 즐겁게 뛰어 놀았던 제1교구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해 보며 지금까지의 준비기간 그리고 그날의 모습들을 되새겨 본다.

준계야외예배에 대한 교구협의회가 시작된 4월 9일. 이 날은 이번 야외예배 행사를 베드로전도회 회장단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하고, 나는 교구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책임의 영광을 짊어진 날이었다. 이 날 이후로 한 달 이상을 야외예배 준비 하나에 모든 신경을 썼다.

물론 처음에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짐스러워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진 것도 사실이지만 각 전도회 회장단으로 조직된 분임장 및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다.

주일 교구모임에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장 장로님 할 것 없이 서로가 모이면 기도하고 의논하며 분임장들은 저녁 식사도 잊은 채 서로의 어려움들을 도왔다. 어떤 집사님은 당일 새벽 선발대를 자진하기도 하고 권사님은 선물과 중식, 그리고 행사 진행까지 맡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 의논하며 함께 협의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고 자원하였다.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일은 당신께서 놓지 않으시는구나. ..."

이렇게 준비된 야외예배.

새벽기도 후 6시부터 자리 확보를 위한 선발대가 도착하고 뒤를 이어 7시

30분에는 권사님 다섯 분이 오셔서 선발대와 교대를 하셨다. 그 뒤로 안내 표시관 부차 담당, 입장권 구매 담당, 명찰 부착 담당, 준비물 운반 담당 등 모든 준비위원들은 각자의 분담 내용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모든 준비를 하였다. 덕분에 예배 시작 전에 모든 준비가 완료될 수 있었다. 서로가 자진하여 서로를 돕고 기도하며 준비한 일들이 여기에서 그 멋진 결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단체 모임이라서인지 선릉 관리 관계자측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270개를 준비한 도시락이 모자랄 정도의 많은 성도들의 화합이 이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구름떼처럼 몰려 온 성도들. 실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모습들이었다. 제1교구 온 식구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웃고 하나가 된 이 날은 한마디로 행복의 도가니였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너무나 아름답기만 하였다.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낀 야외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 나라의 형제 자매는 저런 모습들이구나.' 라고 짐작하게 해주었다. 더구나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즐기던 장소를 깨끗이 치우고 떠나는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사랑 나눔, 바로 그것이었다.

준비에서 진행 마무리까지 모두 아름답기만 했던 야외예배.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지상중계 / 넷째날 (4월 4일) 새벽기도회 ○

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 군대가 다 수장을 당했습니다.

성령이 뒤로 가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가방을 놓자마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어떤 청년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나서는 흐느껴 울어요. "제가 아버지를 죽였는데 아버지 죽인 죄도 용서받습니까?" "예? 당신,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마음으로 미워한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 미워하는 자식들이 더러 있지.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나쁜 마음으로 살인죄를 짓는 경우가 안 있었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아버지를 죽였어요." 아버지 죽었다고 하는 바람에 너무 충격을 받아 "우에 죽었노?" "우리 아버지가 노름쟁이고 술 주정뱅인데 돈은 안 벌고 자꾸 어머니보고, 우리보고 돈 내라고 하고 안 내면 두들겨 패고 술 받아 오라고 했어요. 한번은 또 어디 갔다 오서 가지고 술 받아 오라고 하는데 마음에 죽어야 되겠다,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하지만 저런 인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받아 오라는 술 탁주 한 병을 사 가지고 오면서 비상을 사서 탁주 속에 타서 한 그릇을 아버지에게 바쳐 드렸더니 그것 잡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10년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 잡아요. 형사들이 못 잡아요. 어떻게 피했는지 얼마나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얘기를 당황해 가지고 당장 대답 못하고 "우리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음 주간 제가 기도원에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번 아뢰어 보겠습니다. 그 때 갔다 와 가지고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기도 가 가지고 목요일까지는 교회 문제되는 것 기도하고 금요일 밤에는 밤새도록 "아버지여,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도 문제인데 아버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죽인 죄 용서받습니까? 아버지 죽인 죄 용서받습니까?" 한나가 새벽녘에 영감으로 "죄는 저회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아버지 죽인 죄도 충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그 보다도 적은 죄라도 회개 안하면 용서 못 받는다." "감사합니다." 그 때 답변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의 문제가 해결 안된 사람 고생 많이 합니다. 사람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해도 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간단하게 해결된 사람은 복이 많도다.

다같이 받아 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한번 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한복은 16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습니

다. 성령의 그런 면에 신령한 은사를 받는 것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죄가 처리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어성경에는 '책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성경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죄를 지으면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청년처럼 늘 고통을 겪요. 절망감을 겪요. 자기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감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양심이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죄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고통은 겪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 고치려고 극장에 들어가 앉아 있고 또 스포츠 경기장에 나가 앉아 있고 또 나오면 또 아프다 이래요. 양심적으

한국어성경은 한 마디로 그렇게 했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런 두 가지, '깨닫게 한다, 확신케 한다.' 받아 하세요. "깨닫게 한다, 확신케 한다" 믿습니까?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 문제가 탁 해결되어 버리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혼의 자유, 평강, 기쁨, 그런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신앙의 충화가 있어요. 이런 경험을 이미 다하시고 천성으로 가시는 성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아직까지 확실히 선을 굿듯이 체험을 못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은 뭐냐? 심판은 마귀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마귀의 머리를 내리 부셔서

짓고 살아야 돼요. 살 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성막 안에 있는 법계 위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즉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가운데 강림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와 계시는 곳이에요. 천사들이 와 있어요. 거룩한 성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쁜 것하면 벌받아요. 직통으로 벌받는 사람도 봤어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와서 머물러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들어 올 때도 늘 기도하고 들어오세요. "여호와와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 했는 데, 아버지여, 성결치 못한 자가 오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서 나쁜 것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약에는 눈에 보이도록 늘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그 분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신약에는 그것이 없나요? 40년 동안 시범을 보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임재하겠다고 하십니다. 나도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목사가 뭐 자기가 잘 나서 설교를 합니까? 성령이 능력을 주시는 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중생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회개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믿음의 설교를 하시면 주님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간 시간이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그 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육신의 병든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이 낫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주린 자를 배부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세요. 이 성령이 여러분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충만, 충만,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앞으로 가셔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뒤로 가셔서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이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의 성령으로 이 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줄을 믿고 경건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약에는 눈에 보이도록 늘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그 분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신약에는 그것이 없나요? 40년 동안 시범을 보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때,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임재하겠다고 하십니다. 나도 그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세요.

로 죄를 깨닫는 것은 아프다 아프다 이겁니다. 그러나 셋째로,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가슴이 아프다, 기쁘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령이 아파요.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므로 기쁘다 이겁니다. 그런 역사를 받아본 성도는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되면서 기쁨의 눈물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과거 문제에 대해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성경에 의하면 '책망하신다'가 '확신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다 처리하고 죄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자유를 주듯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함은 너희가 자유를 받겠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말하기를 의롭다 죄에서 자유를 받는 것을 의롭다 그 뜻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나니 믿으라 성령이 믿게 하십니다. 받아 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며 사유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하시며" 믿습니까?

다시는 주의 백성들을 따라 다니면서 애 먹이지 못하도록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늘 마귀가 따라 다니면서 "너 그런 죄 지었지? 목사라 하는 것이, 장로라 하는 것이, 집사라 하는 것이, 권사라 하는 것이 무슨, 무슨 죄를 지었지?" 자꾸 와서 등 뒤에다 대 놓고 그것을 외워 바치고 몰아 세우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를 받고 확신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 순간에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물러가고 다시는 주의 종을,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하고 기쁨으로 천성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성령이 우리 과거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의롭게 하고 마귀에서 놓임을 받는 이런 큰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길 인도하시고 뒤로 가다가 과거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성막을